

할머니의 놋그릇

“그래도 꼭 쓰고 싶으면 할머니 기쁨에 대해서 써...
내 손주들이 어릴 때 할머니가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굳히 잠든 모습을 지켜보는 그 행복에
대해서 써주렴..”



사진신부 관련 정보

어떤 사진신부*들은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고, 몇몇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고아들이었으나, 어떤 사진신부들은 하와이에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찾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 효도와 같은 전통적인 결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 더 나은 삶을 열망하며 하와이로 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사진신부: 서로의 사진만을 바탕으로 농장 노동자들과 결혼하기 위해 고국에서 전 세계로 이주한 젊은 동아시아 여성들

혼인 과정으로는 먼저 남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한국으로 보내 신부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여자들은 사진들 중에서 자신의 남편을 선택했고, 그에 대한 답례로 자신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은 가족이 주선한 중매결혼을 했고 신랑감 선택에 있어서 거의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이 신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중대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진신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자율성과 해방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역사적 배경

1. 사진신부와 그들의 신랑들은 몇살이었나요?

그 당시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15세에서 20세 사이였기에 대부분의 사진신부들은 10대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신부들과 신랑들은 15살 정도 차이났습니다.

2. 하와이로 가는 여정은 어땠나요?

배를 타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신랑들이 사진신부들의 이동비를 지원했지만, 신부들은 3등실에 배정되었습니다. 3등실은 원래 동물을 위한 공간이었기에 굉장히 답답하고 부적절한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갑판 위로 올라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기에 몇몇 사진신부는 배에서 살아나가지 못했습니다.

3. 더 나은 삶을 바라고 하와이로 온 사진신부들을 기다린 현실은 어땠나요?

남자들은 사진신부에게 보내기 위해 빌려 입은 정장을 입고 사치품인 자동차와 큰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신부들은 사진 속에 보여지는 것과 비슷한 집에서 살게될 것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농장 옆에 마련된 좁은 집에서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신랑과 사진 혼인 중매자들이 사진신부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은 여성들이 하와이의 냉혹한 현실을 알 경우 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신랑감에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비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와이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사진신부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많은 사진신부들이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자녀들을 잘 부양하기 위해 부단히 일했습니다. 더 나아가 친목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는 자식을 교육하고 조국의 독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